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

요한복음 14 : 5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삽나이까

요한복음 14 : 6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 : 7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이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지난 주에는 나는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에서, 길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제시하신 길은 신인(神人, God-Man)으로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가는 것으로, 신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받아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 중에서 진리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합니까?

수많은 사람이 이 질문을 던졌지만 아직도 아무도 포괄적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진리의 산파라고 소개한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하였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것은, 네 이름이 무엇인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직업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의 궁극적 문제, 즉 네 자신이 어디서 왔으며,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런 기초적 문제에

대해서조차도 해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너의 무지를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소크라테스의 이 말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철학의 기본 명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의 식자(識者)들은 이 문제에 대해 해답을 얻었습니까?

20 세기의 유명한 철학자인 Birtland Russel 은 그의 80 회 생일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종교를 추구하듯 확실성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나는 앞으로 5 초 후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있다. 앞으로 5 초 후에 무슨 일이 생길 것인가를 확실히 증명할 수 있다면 다른 어떤 것을 주고서라도 바꾸고 싶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자기는 일평생 확실한 것을 추구한다고 살아 왔지만, 앞으로 5 초 후에 생길 일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바로 앞에 닥칠 일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이 어디서 왔으며,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B. Russel 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소크라테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나아가서 모든 철학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시작이요 나중이신 하나님 없이, 학문을 한 것입니다. 만물의 시작이요 만물의 끝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학문을 하니, 자기가 어디서 왔으며,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존재와 가치와 세계관에 대해 답을 할 수 있어야 진리가 됩니다.

저는 오늘 기독교의 탁월성을 말씀드리기 위해,

1. 사람이 어디서 왔으며,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 기독교와 정반대적 입장에 있는 유물론에 대해 말씀을 드린 후
2. 유물론과 비교하여 기독교의 탁월성을 논하려고 합니다.

1. 그러면 첫째로 유물론은 무엇입니까?

유물론은 공산주의의 기초가 됩니다. 1848년 Karl Marx가 공산당 선언을 한 후 세계는 약 1세기 동안 공산주의 운동에 열병처럼 휩싸였습니다. 지구의 거의 반을 공산 주의자들이 약 150년 간 다스렸습니다. 열렬한 공산 주의자들에 의해 이렇게 빠른 속도로 공산 주의가 퍼져 나갔다고 하는 것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종교적 확신을 가지고 공산주의 운동에 열과 성을 쏟았습니다.

그러면 유물론에서는 사람이 어디서 왔으며,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1 유물론에서는 인간이 어디서 왔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물질에서 왔다고 합니다. 인간의 생명도, 인간의 정신도 모두 물질의 운동이라고 주장합니다.

1.2 다음에 사람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에 대해 물질 생산을 위해 살아간다고 합니다. 물질에서 온 인간이기 때문에 필요한 물질 생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사회 활동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물질 생산을 위해 노동을 하는 것이 사회활동의 기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산 주의 국가에서는 노동자와 농민이 사회의 핵이 됩니다. 노동의 당사자인 노동자와 농민이 누려야 할 이익을 자본가와 지주가 착취한다고 합니다.

1.3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 유물론자들은 공산 주의적 유토피아 건설을 그들의 이상으로 내세웁니다. 노동자와 농민이 자본가와 지주를 축출하는 계급투쟁을 통하여, 노동자와 농민이 주인이 되어, 모든 소득을 균등히 하는 유토피아를 건설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 공산 주의의 이론의 핵심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공산 주의 국가와 유토피아 건설을 위해 피의 투쟁을 하였고, 피를 강같이 흘렸습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 동구(東歐) 등 수많은 나라가

공산화되었습니다. 공산 주의운동은 유토피아를 만든 것이 아니고, 집단적인 거지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약 15년 전에 공산 주의의 종주국인 소련에서 공산주의의 깃발을 내렸습니다. 공산주의 운동은 실패하였습니다. 중국은 지금 자본주의 국가와 거의 같게 변했습니다. 북한의 김 정일 체제가 공산주의 국가 아닌 공산주의 국가로 남아 있을 뿐입니다.

20세기 초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을 봉착물로 하여, 대웅 종교의 역할을 하며 수많은 지식인들을 흥분과 열(熱)의 도가니로 몰고 갔던 공산당 운동이 불과 150년 만에 그 깃발을 내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산 주의가 망한 이유를 여러 측면에서 학자들은 분석하여 답을 내렸지만,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간단하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주 간략하게 예언적 답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 : 3 마귀가 예수께 나아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태복음 4 : 4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이 물질로부터 왔기 때문에, 물질인 떡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것이 유물론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만 있으면 사람이 행복해 진다고 하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심으로, 인간의 육신은 떡이 필요하고,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영혼이나 육신이나 떡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유혹한 마귀의 속삭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이외의 다른 것을 영혼의 양식으로 취하려 하는 것은 마치 영양가 없는 떡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중국에서 대 기근이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지자 먹을 수 있는 흙을 파다가 떡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떡은 잠시 동안 포만감을 가져다 줄 뿐 아무런 영양가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은 굶어죽고 말았습니다.

영양가 없는 떡!

이는 세상에 무수히 존재하고 있는 거짓 진리, 종교와도 같습니다. 거짓된 진리와 종교는 굶주린 영혼에게 포만감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영양가가 없으므로 결국 그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영양가 없는 떡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힘들이고 애를 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떡□되시는 분은 예수님뿐이십니다.

그러면 공산주의 운동이 실패한 역사적 사실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은 어떤 철학이나 사상은 마치 영양가 없는 떡과도 같습니다. 이런 떡을 먹으면 죽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즈음 크리스찬들은 너무 굴복을 잘합니다. 타협을 잘합니다. 조그만 즐거움을 위하여 진리를 양보합니다. 다른 사람 핑계를 대며 다른 사람과 같이 행동합니다. 눈에 보이는 작은 손해가 두려워 하나님의 법을 어깁니다. 그리고 그 것이 정당하다고 합리화합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고 맹물 맛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몇 천년 동안 그 확실성이 확인된 진리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 진리가 가르쳐 주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2. 다음은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당신이 진리(신 32:4, God of truth)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진리(요 14:6)라고 천명하시며, 진리의 성령(요 14:17)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의 말씀 또한 진리이며,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진리가 됩니다.

이와같이 기독교는 생명과 정신이 물질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선언합니다. 사람이 물질로 부터 왔다고 하는 유물론과 정반대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행복은 물질 생산에 있지 않고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에 일치하는 삶을 살 때 행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물질로부터 왔기 때문에 물질만 있으면 행복해진다는 유물론과는 정반대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은 어디서 왔으며,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1 기독교에서 사람은 어디서 왔는가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창세기 2 : 7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마치 도공이 도자기를 빚듯, 흙을 취하여 인간의 몸을 빚었으며, 이렇게 물질로 이루어진 몸에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져 영혼이 생기고, 영혼이 물질인 몸에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의 기원은 하나님이며, 인간의 정신 또한 영혼을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유물론과는 정반대 입장에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으로, 사람의 영혼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존엄성이 있으며, 사람의 생명을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죄가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자살은 죄가 되어 자살한 영혼을 위한 천국은 없습니다.

2.2 다음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왜 사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 : 3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에베소서 1 : 4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1 : 5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 : 6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한마디로 하면, 우리는 왜 사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왜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물질 생산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는 유물론과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1 : 4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신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자들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소금 맛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금도 맹탕도 아닙니까?

산 물고기는 바닷 속에서 살아도 짠맛이 없으나, 죽은 물고기는 바닷 속에 넣으면 그 맛이 짜게 변합니다.

살아 있는 물고기는 바닷 속에 있는데 왜 짜게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소금기를 걸러내는 기관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 소금기를 걸러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살았을 때만 작동합니다. 죽으면 이 기관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세상 것을 걸러내어 밖으로 내 보내는 기관이 작동하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 분들께서 자신을 진단해 볼 때, 세상의 소금으로서 짠맛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세상 것을 걸러내는 기관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며, 그 것은 죽은 물고기와 같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지만, 세상에 속해 있어서는 안됩니다.

세상에서 구별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심으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2.3 다음은 어데로 가는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물론자들은 사람은 죽으면 물질로 다시 돌아 가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이 대수롭지 않습니다. 자연 현상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흠에서 온 몸은 일단 흠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불멸합니다. 흠으로 돌아갔던 몸은 그리스도의 재림시 변화한 몸으로 부활하여 신천신지에서 영원히 삽니다.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가진 자는 같은 생명을 따라 하나님께로 가고, 그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갖지 못한 자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원한 고통의 세계로 갑니다.

유유상종(類類相從)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같은 종류는 같은 종류끼리 모인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따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의 생명을 갖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지 못한 자들끼리 모인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신 안에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받아 중생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는 말은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말이 아닙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태까지 공부한 것을 종합해보면, 기독교와 유물론은 정반대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물론자들과 종교 교류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주장하는 유물론적 공산주의 국가 안에서 기독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고통이 끊이지 않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에 이르는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확신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기계신 여러분은 모두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해답을 분명히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소유한 사람이 되어,

그 확신 위에 서서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남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진리를 세상 끝까지 전파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글이나 인터넷 방송을 들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소개해야 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5분만 시간을 내셔서 저의 twitter 나 café 에나, Blog 에 가셔서 소개의 글을 올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조그마한 노력으로 수많은 사람이 읽고 듣게 됩니다.

- Café 명 : 믿음의 향연

<http://cafe.naver.com/Christiansymposium.cafe> 이나

- Blog 명 : 행복의 샘터

<http://blog.daum.net/shk2812> 이나

- * twitter

1. <http://www.twtkr.com> 으로 가셔서 로그인 을 하세요.
2. 바울성서 아카데미(spba0708)에 접속하여 Follower 등록을 하세요
(twitter 안에서검색 box 에 spba0708 을 넣으신후 click 하면 접속됨).
3. 내 twitter 의 home 으로 가서 글을 쓰신 후 tweet 하세요.
4. 제가 twitter 에 올린 글(예, example)

성령님이 인격자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말씀으로 지배한다는 뜻이고, 우리는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 싶으면,
<http://www.stpaulbibleacademy.com/3FCFContents.html>

여섯째주를 공부하시길!

5. Retweet 를 하실 분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home 로 가셔서, 글을 쓰는 Box 에

RT @ 를 type 하신 후 , space 한 후, Retweet 할 내용을 paste 하시면 됨.